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1월 0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11월14일 간다! 서울로!

서울로 10만 이상 집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의 거대한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는 전국에서 10만명 이상의 노동자, 빈민, 학생 등이 집결할 예정이다.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 이번 총궐기는 이런 불만이 모두 모여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도 임원들이 전국의 지회들을 순회하며 총궐기 참여를 독려하고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주 지부장 호소문과 함께 전 지회 확대간부들의 결의 서명을 통해 의지를 다졌다.

정권은 옆구리로 치고 온다

정권의 노동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기간제, 파견제에 대해서는 법안 제출을 마쳤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11월에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

않겠다는 예상을 했는지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면서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노동법 개악보다 관심을 덜 받고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총파업 돌입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정면돌파 보다 옆으로 치고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전면전을 피하면서 현장에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지체없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초장에 제대로 잡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은 교육, 선전을 통해 총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부도 이 태세를 늦추지 않고 언제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진짜 싸움이 오고 있다.

피엘에이 본사농성 해제

피엘에이의 본사 농성투쟁이 11월 4일 끝났다. 4월부터 체불된 임금문제와 대전공장 정상화를 통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됐던 농성이 17일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번 본사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고용보장을 위한 2라운드가 더 중요해졌다.

피엘에이 사측은 10월과 11월 임금을 11월 안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임금은 11월 27일 주주총회 이후 7일 이내에 전액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투쟁 당시 합의했던 합의서를 존중하며 주주총회 이후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개월째 임금 한 톨 받지 못했던 피엘에이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제 불안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 총궐기

○일시 : 11/14(토) 16시
○장소 : 서울 광화문

* 전국노동자대회
: 14시30분 서울시청광장